



이금재(목원대)

1. 들어가는 말

‘신명기(역)사가’와 ‘신명기 역사서(DtrG)’라는 신학적 용어는 노트(M. Noth)¹⁾가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구약 신학자들에 의해서 중요하게 연구되는 주제다. 그에 의하면 신명기부터 열왕기하(룻기 제외)는 주전 561년 여호야킨의 석방 직후, 미스바(왕하 25:23)에서 소위 ‘신명기사가’라는 한 명의 저자에 의해서 ‘신명기 역사서’가 최종 편집 및 기록되었다. 노트는 신명기 역사서 속 신학적 일

1) Martin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SKGG 18,2; Halle: Niemeyer, 1943). 노트 이전에 1805년 독일-스위스 구약학자였던 데 베테(W. M. L. de Wette)는 노트처럼 ‘신명기 역사서’와 같은 특정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자료들은 편집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역사작품(=“Geschichtswerk”)으로 편집되었다고 이미 주장하였다.

관성을 갖춘 하나의 편집층의 존재를 주장하였지만, 이 주장은 이후 신명기 역사서 속 다양한 신학적 견해 차이와 함께 여러 편집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았다.²⁾

무엇보다 스멘트(R. Smend)와 그의 제자인 베이올라(T. Veijola)와 디트리히(W. Dietrich)가 주축이 되는 소위 ‘괴팅엔 학파’는 신명기 역사서는 3개의 기본층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신명기 역사서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신명기사가의 역사층(DtrH), 이스라엘의 역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는 신명기사가의 예언층(DtrP)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 및 왕정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를 표현하는 신명기사가의 율법층(DtrN)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신명기 역사서’의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신학적 평가와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편집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 평가를 들 수 있다. 왕정을 비교적 객관적(때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DtrH’³⁾, 왕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YHWH가 이스라엘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정을 인정해야한다는 ‘DtrP’⁴⁾ 그리고 왕정의 도입은 이스라엘에 대한 YHWH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이기 때문에 왕정에 대하여 비판하는 ‘DtrN’ 등 왕정에 대한 여러 신

2) 노트 이후의 신명기 역사서 편집 연구사에 대하여는, 강사문, 「성서주석 8. 사무엘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61-68와 한스-크리스토프 슈미트, 「구약학 연구 안내서.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차준희/김정훈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370-373. 원제는 Hans-Christoph Schmitt,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rundzüge der Geschichte Israels und der alttestamentlichen Schriften*(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을 참고하라.

3) 예를 들면,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 속에 사울은 여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다.

4)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 모두 YHWH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학적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⁵⁾

왕정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예로, 부버(M. Buber)는⁶⁾ 요담 우화(삿 9:8-15)를 세상에 존재하는 왕정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인 문학작품(= “die stärkste antimonarchische Dichtung der Weltliteratur”)으로 꼽았다.⁷⁾ 이 우화는 왕으로 선택받은 가시나무가 가장 쓸모없는 나무인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에게는 왕의 자격이 없음을 비판함과 동시에 왕은 백성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없음을 풍자하였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반왕권적 견해의 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는 요구(삼상 8:5) 자체가 YHWH를 버리고 YHWH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기록한 사무엘상 8장 7절을 들 수 있다(비교 삿 8:22). 이 본문에서 YHWH는 직접 왕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9절에서 YHWH는 사무엘에게 ‘왕의 권리’를 백성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사무엘은 11-17절에서 ‘왕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몇몇 학자들은 사무엘상 8장 초반부 왕을 요구하는 목소리(5절)와 YHWH를 버리는 것이라는 신학적 평가(7절) 그리고 ‘왕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왕의 권리’에 대한 본문 역시 왕정에 대한

5) 이와 달리 왕정에 대한 비판은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 즉 신명기역사가 등장 이전에 솔로몬(왕상 4: 7)과 르호보암(왕상 12장) 시대에 과도한 부역을 경험한 이후,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면, Frank Crüsemann,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Die antiköniglichen Texte des Alten Testaments und der Kampf um den frühen israelitischen Staat* (WMANT 49;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78), 13.

6) Martin Buber, *Königtum Gottes* (Heidelberg: Verlag Lambert Schneide, 1956³), 24. 이후에 그의 주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면, F. Crüsemann, *위글*, 29; Volkmar Fritz, "Abimelech und Sichem in Jdc. IX", *VT* 32 (1982), 140.

7) 그러나 ‘요담 우화’가 이스라엘 왕국 등장 이전 주변국가에 존재했던 나무와 관련된 우화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Uwe Becker, *Richterzeit und Königtum.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Richterbuch* (BZAW 192; Berlin: De Gruyter, 1990), 190-196와 Reinhard Müller, *Königtum und Gottesherrschaft. Untersuchungen zur alttestamentlichen Monarchiekritik* (FAT II/3; Tübingen: Mohr Siebeck, 2004), 12-34 그리고 Georg Hentschel, *Das Buch der Richter*, in Erich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KST 1.1; Stuttgart: Kohlhammer, 2006⁶), 221에 의하면 ‘요담 우화’의 주제는 왕정의 무능과 위험성과는 거리가 멀다.

부정적인 색채로 채색된 대표적인 왕정에 대한 비판글⁸⁾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사무엘상 8장 11-17절의 ‘왕의 권리’의 전체적 내용이 왕의 부정적인 통치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왕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상 8장 11-17절의 본문 주석 작업과 함께 ‘왕의 권리’의 실제적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문: 사무엘상 8장 11-17절의 ‘왕의 권리’에 대하여

1) 본문 주석

사무엘상 8장 11-17절은 9b절에서 이미 언급된 מִשְׁפָּט וְחַמְמֶלֶק(미슈파트 함멜렉)에 대한 내용을 YHWH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전달하는 형식이다. 한글 번역본과 주석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번역할 정도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로 『개역한글』과 『표준새번역』 그리고 『새번역』은 각각 ‘왕의 권리’와 ‘왕의 권한’으로,⁹⁾ 그리고 주석가에 따라 ‘왕의 법도’, ‘왕의 행위’, ‘왕의 길’ 또는 ‘왕의 요구’처럼 다양한 번역¹⁰⁾이 가능하다. 그러나 מִשְׁפָּט가 지닌 일차적 의미는 ‘권리’, ‘지배권’ 또는 ‘통치권’과 같은 ‘권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

8) F. Crüsemann, *윗글*, 69-73은 대표적인 반왕권적 글로 사무엘상 8장 11-17절을 이해했다. 이외에도 Fritz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ZBK.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60; 강사문, *윗글*, 262-265; 브루스 C. 버치 외,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차준희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341-342. 원제는 Bruce C. Birch (ed.),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2)을 참고하라.

9) NIV, KJV 그리고 NAS와 같은 영어 역본은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로 번역한 ‘공동번역’처럼 명사로 번역하지는 않았다.

10) 강사문, *윗글*, 261.

에,¹¹⁾ 본 연구에서는 מְלִכָּה וְשֹׁמֵרִים을 ‘왕의 권리’로 번역하고자 한다. 이 ‘왕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크게 인적 자원(11b-14,16,17b절)과 물질 자원(15,17a절)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자원은 병거와 말을 다루는 병사, 엘리트 군인(천부장과 오십부장) 그리고 군수물자를 만드는 인력과 왕궁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사용되었으며, 물질 자원은 생산물을 현물로 수취하는 공납(貢納)과 같은 세금을 통해서 징수되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왕의 권리’에 대한 전체적 내용은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왕정에 대한 비판글¹²⁾과 연관시켜 왕정에 대한 순수 정치적-사회적 비판적 내용을 담은 ‘팜플렛(=Pamphlet)’¹³⁾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하면 ‘왕의 권리’는 백성에 대한 강압적이면서도 ‘일방적인 착취’를 의미한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취하다’ 또는 ‘얻다’의 번역보다 ‘탈취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는 נָקַח(라카흐)라는 동사(11.13.14.16절)일 것이다.¹⁵⁾ 이와 함께

11) 이에 대하여는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Berlin/Heidelberg: Springer, 201318), 760-761을 참고하라.

12) ‘왕의 권리’의 내용이 왕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무엘상 8장 속에 왕정의 도입을 YHWH에 대한 배교로 해석하는 신명기사가의 어휘. 예를 들면 7절의 מַאֲסָה(마아스/버리다), 8절의 אָפַר(아짜브/떠나다)와 אֱלֹהֵי אֲחֵרִים וְאֱלֹהֵי יָדָיו(바아압두 엘로힘 아헤림/그들을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18절의 הָיָה לְאֵלֹהֵינוּ אֲדֹנָיִם(YHWH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로 ‘왕의 권리’의 내용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13) Rainer Kessler, *Samuel. Priester und Richter, Königsmacher und Prophet*, (BG 18;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7), 95.

14) Georg Hentschel,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BG 7;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3), 34.37; Shimon Bar-Efrat, *Das Erste Buch Samuel. Ein narratologisch-philologischer Kommentar* (BWANT 176; Stuttgart: Kohlhammer, 2007), 146-147; Walter Dietrich, *Samuel. 1 Sam 1-12* (BK VIII/1; Neukirchen-Vluyn: Vandenhoeck & Ruprecht, 2010), 361-371.

15) 김재구,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구약논단』 통권 35집(2010), 91. 임호명,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구약논단』 통권 46집(2012), 42은 2번 언급된 동사 נָקַח(아사르/십분의 일을 취하다)도 왕이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R. Kessler, 위글, 96-97은 이 두 동사와 함께 왕이 백성에 게서 취한 후 신하에게만 주기 때문에 히브리어 동사 נָתַח(나탄/주다) 역시 왕정을 경고하고 비판하기 위해 사

17b절에서 언급된 종들(עֲבָדִים/야베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왕으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백성을 표현하는 부정적 단어로 여겨진다.¹⁶⁾

이처럼 사무엘상 8장 11-17절 내용의 전반적인 느낌은 왕정이 이스라엘 사회에 도입된 이후¹⁷⁾ 파생될 여러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왕의 권리’의 전체적 내용이 정말 왕과 왕정을 비판하는 대표글로만 이해하기에는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사무엘상 8장 11-17절은 사무엘상 8장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후대에 편집된 단락이라는 것이다.¹⁸⁾ 즉 ‘왕정의 등장이 YHWH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7절과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속 YHWH는 구원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18절의 신학적 판단은 ‘왕의 권리’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왕의 권리’에서 언급되는 인적 자원은 강제로 동원되는 일반 백성이 아닌 직업 군인 및 궁중관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부장과 오십부장은 징집된 일반 사병 보다는 직업군인을 의미하며, 병거와 말을 다루는 것, 무기를 만드는 것, 궁중에서 요리하고 빵을 굽는 것 그리고 향료를 만드는 것 역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¹⁹⁾ 이러한 이유에서 ‘왕의 권리’는 일반 백성의 인력 및 노동력의 착취와는 다르다. 셋째, 경제적 자원의 수취 역시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용된 대표적 3개의 주지(主旨) 동사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 16) 강사문, 윗글, 264. Hans Joachim Stobe, *Das erste Buch Samuelis* (KAT VIII 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1974), 189.
- 17) 몇몇 학자들은 우가릿(Ugarit)과 알라라크(Alalakh)에서 발견된 주전 2000년대 중-후반에 기록된 문서와 ‘왕의 권리’에 대한 내용의 유사성을 근거로 왕국시대 이전에 이미 ‘왕의 권리’는 사무엘에게 전해졌거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왕국 멸망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작 시기에 대한 다양한 논쟁은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4), 148-149. 원저는 Ralph W. Klein, *1 Samuel* (WBC 10; Waco: Word Books, 1983); Rainer Kessle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Ein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6), 101-105와 W. Dietrich, 윗글, 364-365를 참고하라.
- 18) Peter Mommer, *Samuel. Geschichte und Überlieferung* (WMANT 65;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1991), 64-65; R. Kessler, 윗글 (2007), 95; W. Dietrich, 윗글, 363.371.
- 19) F. Crüsemann, 윗글, 71; W. Dietrich, 윗글, 366-368.

냐하면 이는 국가와 백성의 안녕과 번영에 필수적인 도로 및 관개수로와 같은 국가 기간시설의 건설 및 요새 건축과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넷째, 본문에서 4번 언급된 **מֶלֶךְ**는 14절과 15절에서는 왕의 신하를, 16절은 자유민에 속한 노예를 의미한다. 또한 17b 절의 종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왕으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를 의미한다.²⁰⁾ 결국 ‘왕의 권리’에서 언급된 ‘종’이라는 단어만으로 ‘왕의 권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 학자들은 ‘왕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왕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담은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의견에 반대한다. 비록 카스파리(D. W. Caspari)처럼 ‘왕의 권리’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²¹⁾ (최소한) 중립적인 내용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예를 들면, 몸머(P. Mommer)²²⁾는 ‘왕의 권리’는 왕이 백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브뤼게만(W. Brueggemann)²³⁾은 사무엘상 8장 11-17절은 ‘왕의 권리’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라고 주장하였다.

20) F. Crüsemann, *윗글*, 72; Martin Noth, *Könige I, 1-16* (BK IX/1;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2003³⁾), 217와 W. Dietrich, 371의 주장처럼 17b절에서 언급되는 종이 자유가 박탈된 일반 백성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17b절은 이어지는 18절과 함께 왕정이 도입된 이후 부정적 경험을 반영하여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왕의 권리’의 본문(11-17a)의 전체 주어는 왕(3. m. Sg.)이지만 17b절과 18절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2. m. Pl.)이기 때문이다.

21) D. W. Caspari, *Die Samuelbücher* (KAT 7; Leipzig: A. Deichert, 1926), 86. 이외에도 Joachim Vette, *Samuel und Saul. Ein Beitrag zur narrativen Poetik des Samuelbuches* (BVB 13; Münster: LIT Verlag, 2005), 117-121은 ‘왕의 권리’ 속 ‘**מֶלֶךְ**’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결코 부정의 의미를 내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Hans Joachim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KAT VIII 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1973), 187. 역시 긍정적 내용을 담은 팜플렛(=“Pamphlet”)이라고 주장하였다.

22) P. Mommer, *윗글*, 56. 그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취할 때 사용되었던 것(삼상 8:3)과 비교하여 ‘왕의 권리’에서 사용된 동사 **מָנַחַ**는 위험하지 않는(=“harmlos”) 것으로 정의하였다.

23)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64.

2) '왕의 권리'의 삶의 자리 - 왕과 백성이 체결한 '왕의 계약'

만약 '왕의 권리'와 관련되어 사무엘상 8장 11-17절이 부정적 내용이 아닌 객관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본문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상 8장 11-17절에서 계약 용어의 흔적을 확인했다.²⁴⁾ 예를 들면, 디트리히²⁵⁾는 본문에서 'עָבַד'에서 파생된 동사(섬기다)와 명사(종)는 계약과 관련된 단어라고 주장하였으며, 스토베(H. J. Stoebe)²⁶⁾와 세바스(H. Seebass)²⁷⁾는 '왕의 권리'는 왕과 백성이 체결한 계약의 일부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왕과 백성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에서 '왕의 권리'의 삶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을 국립국어원의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돕 또는 그런 약속”²⁸⁾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²⁹⁾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계약은 체결하는 쌍방 간의 의무와 권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계약'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는 בְּרִית (베리트)이다. 종교적 영역에서 '언약'³⁰⁾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세속적 영역에서는 개인적

24) 이와 반대로 F. Crüsemann, 윗글, 72은 '왕의 권리'와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5) W. Dietrich, 윗글, 371. 이러한 주장은 이미 Timo Veijola,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AASF.B 198; Helsinki: Suomalainen Tiedekatemia, 1977), 62가 언급했다.

26) H. J. Stoebe, 윗글, 186-187.

27) Horst Seebass, "Traditionsgeschichte von 1 Sam 8, 10 17ff und 12", *ZAW* 77 (1965), 295-296.

28)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9) 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

30) 예를 들면, YHWH와 노아 사이의 언약(창 9장), YHWH와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창 15:18; 17장) 또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YHWH와 맺은 언약(출 24장) 등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맺은 ‘계약’을 의미한다.³¹⁾ 종교적 영역의 언약이 한쪽의 일방적인 의무인지³²⁾ 아니면 쌍방의 의무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지만, 세속적 영역의 계약은 이에 관여한 자들의 쌍방 간의 의무와 권리를 원칙으로 한다.³³⁾ 이러한 세속적 의미에서 왕과 백성 사이에 맺는 계약 역시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기되었을 것이다. 왕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이후에 언급할 것이다.

3) 왕위즉위식과 ‘왕의 계약’

구약에서 왕과 백성 또는 백성의 대표자와 체결한 계약은 총 네 번(삼하 5:3; 왕하 11:17; 23:1-3; 램 34:8)³⁴⁾ 언급되었다. 이 중에서 ‘왕의 권리’와 관련하여 논할 수 있는 계약은 다윗이 북쪽 지파 이스라엘

-
- 31)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계약(창 21:27), 야곱과 라벤(창 31: 43-54) 여호수아와 기브온 주민과 맺은 계약(수 9:15-20)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맺은 계약(왕상 5:26) 등.
- 32) 대표적인 신학자로 존 D. 레벤슨, 『사내산과 시온. 하버드대학 유대인 성서학자 본 성서 신학의 두 기둥』(홍국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원제는 Jon D. Levenson, *Sinai &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5)을 들 수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시내 산 언약은 마치 종주(YHWH)와 봉신(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종주권 조약으로 봉신인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적으로 종주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 33) ‘구약 속 ברית는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라고 Johannes Pederson, *Der Eid bei den Semiten. In seinem Verhältnis zu verwandten Erscheinungen sowie die Stellung des Eides im Islam* (Straßburg: Verlag von K. J. Trübner, 1914), 40-44, 60-63이 주장한 이후, ברית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ברית의 어원의 의미를 ‘쌍방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아카드어 biru에서 찾은 Martin Noth, “Das alttestamentliche Bundschließen im Lichte eines Mari-Textes”, in Martin Noth,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B 6; München, Chr. Kaiser, 1966³), 147-148는 페더슨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Joachim Begrich, “Berit. Ein Beitrag zur Erfassung einer alttestamentlichen Denkform”, *ZAW* 60 (1944), 1-11는 계약을 맺은 다수의 당사자들 가운데 한쪽에게 일방적인 의무가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 Ernst Kutsch, “*KARĀT B^FRI*. Eine Verpflichtung festsetzen”, in: Hartmut Gese / Hans Peter Rüter (Hg.), *Wort und Geschichte. Festschrift für Karl Ellinger zum 70. Geburtstag* (AOAT 18;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73), 121-127는 ברית과 함께 오는 전치사 (ל, עמ, את)에 따라 때로는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때로는 한쪽의 일방적인 의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Mosche Weinfeld, ברית, ThWAT I (Stuttgart: Kohlhammer, 1973), 787-788와 Trygve N. D. Mettinger, *King and Messiah. The Civil and Sacral Legitimation of the Israelite Kings* (CBOT 8; Lund: CWK Gleerup, 1976), 137-139를 참고하라.
- 34) 이외에도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불화로 다윗에게 망명을 결심한 후 그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 (삼하 3:6-21) 그리고 과도한 노역과 세금으로 인하여 르호보암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했던 북쪽 지파 사람들의 시도 (왕상 12:1-16)를 왕과 맺으려는 계약의 다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의 장로들과 체결한 계약(삼하 5:3)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북 왕국 출신 아달랴 여왕을 폐위시킨 이후, 요아스를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시키는 과정에서 왕궁 친위대와 왕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다(왕하 11:4).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헤브론에서(삼하 2:4)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북왕국 출신 아달랴 여왕을 폐위시키고 왕실의 경호를 책임지는 백부장과 성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왕하 11:4)³⁵⁾ 요아스를 새로운 유다 왕으로 추대한다. 이 두 사건에서 다윗과 요아스가 왕으로 추대하면서 계약³⁶⁾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예 이외에도,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는 일련의 사건(삼하 2:4b-7)은 계약과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된 이후(삼하 2:4), 사울과 특별한 유대관계(삼상 11:1-11; 31:11-13)를 맺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낸다. 그가 전령을 보낸 이유는 사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그들에게 YHWH의 축복을 전하기 위한 이유도(5절), YHWH처럼 다윗 자신도 ‘선한 것’ 또는 ‘호의’(חַסְדִּים/할도바)를 베풀려는 의도도 분명 아닐 것이다(6절). 오히려 다윗의 실질적인 목적은 길르앗 야베스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마하나임에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된 이스보셋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깨려는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확대를 위한 것이었다.³⁷⁾ 이러한 이유에서 6절의 다윗의 의도 חַסְדִּים는 단순히 ‘선한 것’을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몇몇 신학자들이 주

35) 여호야다가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아마도 요아스가 7살로 너무 어려기 때문일 것이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야다는 실제로 요아스의 정치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본 논문에서 ‘왕의 권리’와 왕위즉위식과 연관되어 왕이 체결한 계약을 ‘왕의 계약’으로 정의한다.

37) Peter Kyle McCarter,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ncB 9; Garden City: Doubleday, 1984), 85.

장하는 것처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들과 맺으려는 ‘계약’, 또는 다윗(=주신)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봉신) 사이에 맺는 ‘봉신계약’의 우회적 표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³⁸⁾

‘왕의 계약’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요아스의 왕위즉위식이 **בְּכִשְׁוֹפָט**(캄미쉬파트)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는 보도(왕하 11:14)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새번역』은 “대관식 규례에 따라”로, 영어 역본(NIV, NAS)은 각각 “as the custom”과 “according to the custom”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전체 즉위식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בְּכִשְׁוֹפָט**’가 정관사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단어를 ‘그 규례에 따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בְּכִשְׁוֹפָט**가 정관사로 한정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왕의 계약’)이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즉위식 여러 의식들 중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온전한 ‘왕위즉위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구약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왕위즉위식에 대한 정보³⁹⁾와 구약의 여러 곳에

38) 이미 William L. Moran, “A Note on Some Treaty Terminology of the Sefire Steles”, *JNES* 22 (1963), 173-176는 세피레 석비에 언급된 아카드어 *tbl*를 ‘우호적 관계(=friendship)’로 번역함으로 ‘**בְּכִשְׁוֹפָט**’ 속에 ‘계약’의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그의 주장은 Michael Fox, “Tōb as Covenant Terminology”, *BASOR* 209 (1973), 41-42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Dennis J. McCarthy는 자신의 저서 *Treaty and Covenant. A study in form in the ancient Oriental documents and in the Old Testament* (AnBib 21A;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8²), 171, 각주 28와 논문 “Compact and Kingship: Stimuli for Hebrew Covenant Thinking”, in Tomoo Ishida (ed.), *Studies in the period of David and Solomon and other essays, Papers Rea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Biblical Studies, Tokyo, 5-7 December 1979* (Winona Lake: Eisenbrauns, 1982), 77에서 ‘*tob*’를 “technical treaty language”로, 또 다른 논문인 “Ebla, ὄρκια τέμνειν τh, *šlm*: Addenda to Treaty and Covenant”, *Bib.* 60 (1979), 250에서 6절의 ‘*tob*’를 사무엘하 5장 3절의 **בְּכִשְׁוֹפָט**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했다. T. N. D. Mettinger, *윳글*, 147-149, 역시 다윗은 실제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과 ‘왕의 계약(=a royal covenant)’을 맺기를 원했다고 주장하였다.

39) 이집트의 예는 Winfried Barta, Art. Königskrönung, *Lexikon der Ägyptologie III* (Wiesbaden: Harrassowitz, 1980), 531 - 533을, 메소포타미아의 예는 Johannes Renger, Art. Inthronisation (RLA 5; Berlin: De Gruyter, 1976-1980) 128-136을 그리고 히타이트의 예는 Hans Martin Kümmel, *Ersatzrituale für den hethitischen König*, *StBoT 3* (Wiesbaden: Harrassowitz, 1967), 11를 참고하라.

서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 즉위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과정을 추측할 수는 있다. 다윗과 요아스의 즉위식에서는 ‘왕의 계약’과 ‘기름부음’(삼하 5:3; 왕하 11:12)이 공통적으로 언급된다. 여기에 요아스의 경우는 (이후에 언급할) 율법책으로 번역(개역개정)되는 חֲמִיץ(하에두트)를 왕에게 수여하고 왕관을 씌우는 행위 그리고 백성의 만세수와 환호성이 추가로 언급된다.

이외의 예식은 솔로몬의 즉위하는 과정(왕상 1:32-40)을 살펴보면 좀 더 많은 즉위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왕은 노새⁴⁰⁾와 같은 왕만이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을 통해서 기혼 샘⁴¹⁾에 도착하고, 이후에 요아스 경우처럼 왕은 제사장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⁴²⁾ 백성의 만세수와 환호성을 통해서 백성의 동의를 얻는다. 제사장이 기름 붓는 이유는 YHWH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위의 정당성이 YHWH로부터 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한 이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서 예식이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왕에게 왕관, 장식품(머리띠나 팔찌 등), 왕권을 상징하는 무기와 왕홀(王笏)의 수여 그리고 어복(御服)의 착용 등이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⁴³⁾ 그리고 왕이 왕궁의 보좌에 앉음으로 즉위식은 종료되었을 것이다.⁴⁴⁾ 또한 즉위식 과정에 YHWH께 드리는 제의도

40) Gerhard von Rad, "Das jüdische Königsritual", in: ders.,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B 8;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⁴), 205와 R. Müller, *윗글*, 61, 각주 96는 왕이 노새를 타는 것이 이스라엘 왕위즉위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하였다.

41) Hans Joachim Kraus, *Psalmen 60-150* (BK XV2;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 1989⁶), 936은 왕이 기혼 샘으로 내려간 이유로 왕은 '생명의 샘'이라는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혼 샘'의 물을 마셔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42) 기름부음의 장소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G. von Rad, *윗글*, 206는 성전에서, H. J. Kraus, *윗글*, 936는 제왕시편 110편 연구를 통해서 기혼 샘에서 거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3) 왕관을 씌우는 예식(삼하 12:30; 왕하 11:12) 이외의 다른 예식은 구약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예식이 진행되었음을 각주 39에서 언급된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다.

44) 이러한 이유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 즉위식 예식이 정형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진행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안치 후 화목제를 드렸듯이(삼하 6:20), 국가 주요행사에 제의는 필수요소였기 때문이다.

왕위즉위식에서 왕이 계약을 맺는 의식이 포함되었음을 이스라엘 왕국 탄생 이전 고대 근동의 자료, 예를 들면 히타이트 중왕국 시대(주전 15세기)의 자료⁴⁵⁾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서는 ‘왕의 계약’과 같은 의미의 ‘충성서약’(=adê)⁴⁶⁾을 맺음으로 왕은 자신의 왕위 정당성 및 관료와 백성의 충성과 지지를 얻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왕위즉위식 행사에 왕이 계약을 맺는 상징적 의식(=왕의 계약)이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 포함되었을까? 몇몇 학자들은 이미 왕정 초기에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포러(G. Fohrer)나 벤-바락(Z. Ben-Barak)은 사울은 미스바(삼상 10:17절)에서⁴⁷⁾, 이와 달리 알트(A. Alt)나 메팅어(T. N. D. Mettinger)는 길갈(삼상 11:14-15)에서 백성과 ‘왕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였다.⁴⁸⁾ 그러나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사건에서 ‘왕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⁴⁹⁾ 사울과 다윗 모두 진정한 왕국시대로

45) 무엇보다 히타이트 제국에서 ‘왕의 계약’은 왕위즉위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lbrecht Goetze, *Kleinasien*, Handbuch der Altertumswissenschaft, III, I, 3, 3, I (München: Beck, 1957), 85-88는 ‘왕위즉위식에서 백성 지도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했다’는 주장하였으며, Georg Fohrer, “Der Vertrag zwischen König und Volk in Israel”, *ZAW* 71 (1959), 19, 각주 34는 이러한 백성의 동의를 왕과 백성의 대표자와 맺는 ‘왕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Mauro Giorgieri, “Zu den Treueiden mittelhethitischer Zeit”, *AoF* 32 (2005), 322-346을 참고하라.

46) 예를 들면, Simo Parpola / Kazuko Watanabe, *Neo-Assyrian treaties and loyalty oaths* (SAA II;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8)는 산헤립과 에사르하돈의 예를 언급했다.

47) G. Fohrer, *윗글*, 4; Zafirra Ben-Barak, “The Mizpah Covenant (I Sam 10 25) - The Source of the Israelite Monarchic Covenant”, *ZAW* 91 (1979), 30-43.

48) 다윗의 경우는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삼하 2:4a) 추대되는 과정에서 이미 유다 지파와 ‘왕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G. Fohrer, *윗글*, 4와 Trygve N. D. Mettinger, *윗글*, 198.

49) 이 시기는 엄밀히 말한다면 ‘kingdom’이 아닌 여전히 ‘지파중심’(=chiefdom)의 시기였다. 이에 대하여는 James W. Flanagan, “Chiefs in Israel”, *JSOT* 20 (1981), 47-83과 Rainer Kessler, “Chiefdom oder Staat? Zur Sozialgeschichte der frühen Monarchie”, in: ders., *Studien zur Sozialgeschichte Israels* (SBAB 46; Katholisches Bibelwerk: Stuttgart, 2009), 157을 참고하라.

넘어가는 과도기로 각각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삼상 9:1; 22:7)과 유다(삼상 16:1)의 지지를 얻어 왕으로(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자신이 속한 지파의 ‘지도자’로) 등극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⁵⁰⁾ 이러한 이유에서 헤브론에서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이 체결한 계약을 첫 번째 ‘왕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 때 또 한 번 ‘왕의 계약’이 언급되었지만, 유다 역사에서 매 왕위 즉위식에서 상징적⁵¹⁾ 의미로 ‘왕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다. 구약에서 20명의 유다 왕들 중 다윗과 요아스의 왕위즉위식에서만 ‘왕의 계약’이 언급된 이유는 이 두 사건이 정치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유다 출신인 다윗이 북쪽 지파의 왕으로 즉위했다는 정치적 의미와 북이스라엘 출신 아달라에 의해서 단절되었던 유다왕의 계보를 요아스가 다시 계승했다는 정치적 의미가 담긴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약에서 비록 단 두 번 왕위즉위식과 연관되어 ‘왕의 계약’이 언급되었지만, ‘규례에 따라’(=לְכַתְּבֵי הַחֻקִּים) 진행되는 왕위즉위식의 예식들 중에 ‘왕의 계약’은 포함되었을 것이다.

4) ‘왕의 계약’ 문서 내용: 왕의 ‘권리’와 ‘의무’

요아스의 즉위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חַתֻּמֵי (하에두트)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다(왕하 11:12). 보통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종교적 의미의 ‘증거판’ 또는 ‘증거궤’로 번역되지만,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왕이 지켜야 할 “율법책”(왕상 2:3; 왕하 17:15; 23:3)⁵²⁾ 또는 왕권의

50) 이와 함께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길갈과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이며,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의 왕으로 추대 받은 헤브론 역시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라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51)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매 왕위즉위식 때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이 매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Georg Hentschel, *1 Könige* (NEB 10; Würzburg: Echter Verlag, 1985), 53.

상징물로 패용할 수 있는 보석⁵³⁾ 등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해석으로는 바쉬케(E.-J. Waschke)의 주장이다. 그는 ערוּת 와 아시리아의 왕 에사르하돈(B. C. 680-669)이 자국의 유력 신하와 봉신국가의 왕들과 함께 체결한 계약(=adê)을 비교하였다. 소위 에사르하돈의 봉신계약(The Vassal Treaties of Esarhaddon =VTE)⁵⁴⁾ 이라고 일컫는 이 계약은 자국 신하에게도 충성서약을 받았기 때문에, ‘봉신계약’이라는 용어보다 앞에서 언급한 ‘충성서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바쉬케는 계약을 의미하는 이 ‘adê’와 ערוּת 사이의 자음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건넨 ערוּת은 ‘왕의 계약’이 문자로 기록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⁵⁵⁾ 그의 주장을 통해서 ‘왕의 계약’의 내용이 문서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왕의 계약’이 문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또 다른 본문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삼상 10:17-24)에 이어지는 25절⁵⁶⁾을 들 수 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 מִשְׁפַּט הַמְּלָכָה)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삼상 10:25, 개역개정)”

25절에서 언급된 מִשְׁפַּט הַמְּלָכָה (미쉬파트 함멜루카)는 주석가와 번역본에 따라서 번역이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주석하기는 어렵다.

53) Christoph Levin, *Der Sturz der Königin Atalja, Ein Kapitel zur Geschichte Judas im 9. Jahrhundert v. Chr.* (SBS 105;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2), 47, 각주 44; Alexander Achilles Fischer, *Von Hebron nach Jerusalem.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zur Erzählung von König David in II Sam 1-5* (BZAW 335; Berlin: De Gruyter, 2004), 30, 각주 65.

54)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Rykle Berger, *Die Vasallenverträge Asarhaddons mit medischen Fürsten* (TUAT I; Gütersloh: Gütersloh Verlag, 1982), 160-177(=ANET, 534-541)을 참고하라.

55) Ernst-Joachim Waschke, *Der Gesalbte. Studien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BZAW 306; Berlin: De Gruyter, 2001), 37-43, 이미 Johann Maier, *Das altisraelitische Ladeheiligtum* (BZAW 93; Berlin: De Gruyter, 1956), 71-72에서 이를 주장하였다.

56) 많은 주석가들의 주장처럼, 예를 들면 W. Dietrich, *윳글* (2010), 471-472, 25절은 17-24절과 별개로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YHWH 앞’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나라의 제도’, ‘나라의 법도’, ‘왕의 본성’, ‘왕권의 규정’, ‘왕의 권리와 의무’, ‘왕의 제도’로 학자와 번역본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⁵⁷⁾

그러나 ‘미쉬파트 함멜루카’가 YHWH 앞에 안치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⁵⁸⁾ 이 용어에 해석으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또는 법률적 규칙을 뜻하는 소위 신명기 17장 14-17절의 ‘왕의 규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⁵⁹⁾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에 이어지는 25절은 정치적 관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명기의 ‘왕의 규례’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는 종교적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미쉬파트 함멜루카’가 왕이 지켜야할 종교적 규례라면, 사무엘이 그 내용을 백성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한 것은 왕과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톨쯔 외 여러 신학자가 주장한 것처럼,⁶⁰⁾ ‘미쉬파트 함멜루카’는 ‘왕의 규례’의 의미보다는 ‘왕의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25절의 편집자는 왕위즉위식에서 왕이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백성에게 선포한 후, ‘왕이 계약’의 문서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는 역사적 사건을 전제로 위 내용을 기술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왕의 계약’이 문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한 내용은 아쉽게도 확인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약이 쌍방 간의 의무와 권리를 전제한다면, ‘왕의 계약’의 내용 역시 왕과 백

57) 강사문, 윗글, 318.

58) 앞에서 언급한 ‘מִשְׁפַּט חַמֶּלְרוּכָ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59) 강사문, 윗글, 262, 318. 랄프 W. 클레인, 윗글, 188와 Silvia Schroer, *Die Samuelbücher* (NSK.AT 7;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2), 66.

60) F. Stolz, 윗글, 72-73; Diana Vikander Edelman, *King Saul in the historiography of Judah* (JSOT.S 121; Sheffield: JSOT Press, 1991), 57; W. Dietrich, 윗글 (1992²), 96; W. Dietrich, 윗글 (2010), 471-472. G. Hentschel, 윗글 (2003), 52은 ‘왕의 권리’가 기록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성의 상호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기록되었을 것이다. 왕의 백성에 대한 권리는 사무엘상 8장 11-17절의 내용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듯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역(賦役), 전세(田稅) 그리고 공납(貢納)을 백성에게 요구할 권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왕의 의무’는 무엇이었을까? 이어지는 20절에서 왕의 가장 큰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⁶¹⁾ 이를 위해서 왕은 잘 훈련된 군대를 조직하고 (왕상 10:26) 성벽 보수 및 요새 시설 건설(왕하 20:20)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할 의무를 지녔다. 그러므로 ‘왕의 권리’에서 언급된 군사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삼상 8:11-12)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왕의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왕의 권리’는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20절을 사무엘하 8장 15절(비교 삼하 15:2-6)과 연관시켜 본다면,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역시 왕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의무임을 알 수 있다.⁶²⁾ 이외에도 왕은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왕은 영원한 제사장(시 110:4)으로 YHWH를 위한 성전 건축 및 보수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을 관리할 의무(왕상 7; 왕상 15:15), 제의 행사(삼하 6:13;17; 왕상 8:62; 렘 30:21)와 주요 절기(왕상 8:64; 9:25; 왕하 23:21-23)를 지킬 의무, 지속적인 종교개혁(왕상 15:12-14; 왕상 22:46; 왕하 11:17-18; 18:4.22; 22-23)의 의무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YHWH 앞에서 복을 빌어 줄 의무가 있었다(왕상

61) Manfred Weippert, "Heiliger Krieg in Israel und Asszrien. Kritische Anmerkungen zu Gerhard von Rads Konzept des Heiligen Krieges im alten Israel", ZAW 89 (1972), 460-493; R. Kessler, *윗글* (2006), 88.

62) Rainer Kessler, *Staat und Gesellschaft im vorexilischen Juda. Vom 8. Jahrhundert bis zum Exil* (VTS. 47; Leiden: Brill, 1992), 209.

8:14).

뿐만 아니라 왕국 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왕은 사회적 생산기반이나 경제 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비록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의 지나친 부역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왕에게는 생산 기반이나 경제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 기간 시설을 발전시킬 의무도 존재했다.⁶³⁾ 왜냐하면 이는 백성의 민생안정과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3. 나가는 말

사무엘상 8장의 전체 내용과 연관시켜서 11-17절에서 언급되는 ‘왕의 권리’를 읽는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 왕정이 가져다 줄 부정적 결과에 대한 설명처럼 보인다. 첫째, 8장 서두(7-8절)에 왕정의 도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신학적 평가와 왕정 도입으로 인해서 YHWH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을 것(18절)이라는 신학적 판단을 연관시켜 ‘왕의 권리’를 읽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보다 ‘왕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탈취하다’, ‘만들게 하다’, ‘시키다’ 또는 ‘종이 될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 및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 속에서 ‘왕의 권리’를 설명하는 본문(삼상 8: 11-17)은 왕정이 도입된 이후에 첨가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본문 주석에서 언급했듯이, 사무엘상 8장 11-17절의 ‘왕의 권리’는 계약과 연관된 객관적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왕위즉

63) 고대 근동에서도 이러한 왕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관계수로 건설 및 정비의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이는 백성의 안녕과 경제적 풍요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Wolfgang Fauth, "Der königliche Garten und Jäger im Paradiesos. Beobachtungen zur Rolle des Herrschers in der vorderasiatischen Hortikultur", *Persica* 8 (1979), 17-19; Klaus Stähler, *Der Herrscher als Pflüger und Säer. Herrschaftsbilder aus der Pflanzenwelt* (Beiträge zur antiken Bildersprache 6; Münster: Ugarit Verlag, 2001), 157-159를 참고하라.

위식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상징적 의식으로 왕과 백성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왕위즉위식에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구약의 몇몇 구절과 고대근동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타의 세속적인 계약이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처럼, ‘왕의 계약’ 역시 왕과 백성 서로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리를 담고 있다. 결국, 사무엘상 8장 11-17절은 ‘왕의 계약’의 일부 내용으로 ‘왕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무엘상 8장 11-17절은 왕정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왕이 백성에 행사하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참고문헌

- 강사문, 「성서주석 8. 사무엘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김재구,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구약논단」 통권 35집 (2010), 74-97.
- 임호명,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구약논단」 통권 46집(2012), 38-71.
-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 (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4).
원제 Ralph W. Klein, 1 Samuel (WBC 10; Waco: Word Books, 1983).
- 브루스 C. 버치 외,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차준희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원제 Birch, Bruce C., (ed.),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²).
- 존 D. 레벤슨, 「시내산과 시온. 하버드대학 유대인 성서학자 본 성서 신학의 두 기둥」 (홍국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원제 Levenson, Jon D. *Sinai & Zion. An entry into the Jew-*

- ish bible*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5).
- 한스-크리스토프 슈미트, 「구약학 연구 안내서.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차준희/김정훈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원제 Schmitt, Hans-Christoph,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rundzüge der Geschichte Israels und der alttestamentlichen Schrif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3).
- Alt, Albrecht, “Die Staatenbildung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in ders.,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II* (München: C.H. Beck'sche, 1964³), 1-63.
- Bar-Efrat, Shimon, *Das Erste Buch Samuel. Ein narratologisch-philologischer Kommentar* (BWANT 176; Stuttgart: Kohlhammer, 2007).
- Barta, Winfried, Art. Königskrönung, *Lexikon der Ägyptologie III* (Wiesbaden: Harrassowitz, 1980), 531 - 533.
- Becker, Uwe, *Richterzeit und Königtum.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Richterbuch* (BZAW 192; Berlin: De Gruyter, 1990).
- Begrich, Joachim, “Berit. Ein Beitrag zur Erfassung einer alttestamentlichen Denkform”, *ZAW* 60 (1944), 1-11.
- Ben-Barak, Zafrira, “The Mizpah Covenant (I Sam 10:25) – The Source of the Israelite Monarchic Covenant”, *ZAW* 91 (1979), 30-43.
- Borger, Rykle, *Die Vasallenverträge Asarhaddons mit medischen Fürsten* (TUAT I; Gütersloh: Gütersloh Verlag, 1982), 160-177.
- Brueggemann, Walter,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uber, Martin, *Königtum Gottes* (Heidelberg: Verlag Lambert Schneide, 1956³).
- Caspari, D. W., *Die Samuelbücher* (KAT 7; Leipzig: A. Deichert, 1926).
- Crüsemann, Frank,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Die antiköniglichen Texte des Alten Testaments und der Kampf um den frühen israelitischen Staat* (WMANT 49;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78).
- Dietrich, Walter, *David, Saul und die Propheten. Das Verhältnis von Religion und Politik nach den prophetischen Überlieferungen vom frühesten Königtum in Israel* (BWANT 122; Stuttgart: Kohlhammer, 1992²).
- Dietrich, Walter, *Samuel. 1 Sam 1-12*, BK VIII/1 (Neukirchen-Vluyn: Vandenhoeck & Ruprecht, 2010).
- Fauth, Wolfgang, "Der königliche Garten und Jäger im Paradies. Beobachtungen zur Rolle des Herrschers in der vorderasiatischen Hortikultur", *Persica* 8 (1979), 1-53.
- Fischer, Alexander Achilles, *Von Hebron nach Jerusalem.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zur Erzählung von König David in II Sam 1-5* (BZAW 335; Berlin: D. Gruyter, 2004).
- Flanagan, James W., "Chiefs in Israel", *JSOT* 20 (1981), 47-73.
- Fohrer, Georg, "Der Vertrag zwischen König und Volk in Israel", *ZAW* 71 (1959), 1-22.
- Fox, Michael, "Tôb as Covenant Terminology", *BASOR* 209 (1973), 41-42.

- Fritz, Volkmar, "Abimelech und Sichem in Jdc. IX", *VT* 32 (1982), 129-144.
- Gesenius, Wilhelm,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Berlin/Heidelberg: Springer, 201318).
- Giorgieri, Mauro, "Zu den Treueiden mittelhethitischer Zeit", *AoF* 32 (2005), 322-346.
- Hentschel, Georg, *1 Könige* (NEB 10; Würzburg: Echter Verlag, 1985).
- Hentschel, Georg,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BG 7;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3).
- Hentschel, Georg, Das Buch der Richter, in Erich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KST 1,1; Stuttgart: Kohlhammer, 2006⁶), 213-221.
- Kessler, Rainer, *Staat und Gesellschaft im vorexilischen Juda. Vom 8. Jahrhundert bis zum Exil* (VT,S 47; Leiden: Brill, 1992).
- Kessler, Raine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Ein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6).
- Kessler, Rainer, *Samuel. Priester und Richter, Königsmacher und Prophet* (BG 18;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7).
- Kessler, Rainer, "Chieftdom oder Staat? Zur Sozialgeschichte der frühen Monarchie", in: ders., *Studien zur Sozialgeschichte Israels* (SBAB 46; Katholisches Bibelwerk: Stuttgart, 2009), 148-166.
- Kraus, Hans Joachim, *Psalmen 60-150*, (BK XV2; Neukirchen-

- Vluyn: Neukirchner Verl., 19896).
- Kutsch, Ernst, "KARĀT B^ERĪT. Eine Verpflichtung festsetzen",
in: Hartmut Gese / Hans Peter Rieger (Hg.), *Wort und
Geschichte. Festschrift für Karl Ellinger zum 70. Geburt-
stag* (AOAT 18;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73), 121-127.
- Levin, Christoph, *Der Sturz der Königin Atalja, Ein Kapitel zur
Geschichte Judas im 9. Jahrhundert v. Chr.* (SBS 105;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2).
- Maier, Johann, *Das altisraelitische Ladeheiligtum* (BZAW 93;
Berlin: De Gruyter, 1956).
- McCarter, Peter Kyle,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
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ncB 9; Garden City:
Doubleday, 1984).
- McCarthy, Dennis J., *Treaty and Covenant. A study in form in
the ancient Oriental documents and in the Old Testament*
(AnBib 21A;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8²).
- McCarthy, Dennis J., "Ebla, ὄρκια τέμνειν *tb*, *šlm*: Addenda to Trea-
ty and Covenant", *Bib.* 60 (1979), 247-253.
- McCarthy, Dennis J., "Compact and Kingship: Stimuli for He-
brew Covenant Thinking", in Tomoo Ishida (ed.), *Stud-
ies in the period of David and Solomon and other essays,
Papers Rea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Bibli-
cal Studies, Tokyo, 5-7 December 1979* (Winona Lake:
Eisenbrauns, 1982), 75-92.
- Mettinger, Tryggve N. D., *King and Messiah. The Civil and Sacral
Legitimation of the Israelite Kings* (CB,OT 8; Lund: CWK

- Gleerup, 1976).
- Mommer, Peter, Samuel. *Geschichte und Überlieferung* (WMANT 65; Neukirchen – Vluyn: Neukirchen Verlag, 1991).
- Moran, William L., “A Note on Some Treaty Terminology of the Sefire Steles”, *JNES* 22 (1963), 173-176.
- Müller, Reinhard, *Königtum und Gottesherrschaft. Untersuchungen zur alttestamentlichen Monarchiekritik* (FAT II/3;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Noth, Martin,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SKGG 18,2; Halle: Niemeyer, 1943).
- Noth, Martin, “Das alttestamentliche Bundschließ en im Lichte eines Mari-Textes”, in Martin Noth,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B 6; München, Chr. Kaise, 1966³), 142-154.
- Noth, Martin, *Könige I, 1-16* (BK IX/1;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2003³).
- Parpola, Simo / Watanabe, Kazuko, *Neo-Assyrian treaties and loyalty oaths*, (SAA II;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8).
- Rad, Gerhard von, “Das judäische Königsritual”, in: ders.,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B 8;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⁴), 205-213.
- Renger, Johannes, Art. Inthronisation (RLA 5; Berlin: De Gruyter, 1976-1980) 128-136.
- Schroer, Silvia, *Die Samuelbücher* (NSK.AT 7;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2).

Seebass, Horst, "Traditionsgeschichte von 1 Sam 8, 10 17ff und 12", *ZAW* 77 (1965), 286-296.

Stähler, Klaus, *Der Herrscher als Pflüger und Säer. Herrschaftsbilder aus der Pflanzenwelt* (Beiträge zur antiken Bildersprache 6; Münster: Ugarit Verlag, 2001).

Stoebe, Hans Joachim, *Das erste Buch Samuelis* (KAT VIII 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1973).

Stolz, Frit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K.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81).

Veijola, Timo,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AASF.B 198;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7).

Vette, Joachim, *Samuel und Saul. Ein Beitrag zur narrativen Poetik des Samuelbuches* (BVB 13; Münster: LIT Verlag, 2005).

Waschke, Ernst-Joachim, *Der Gesalbte. Studien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BZAW 306 Berlin: De Gruyter, 2001).

Weinfeld, Mosche, בְּרִיית, *ThWAT I* (Stuttgart: Kohlhammer, 1973), 781-808.

Weippert, Manfred, "Heiliger Krieg in Israel und Asszrien. Kritische Anmerkungen zu Gerhard von Rads Konzept des Heiligen Krieges im alten Israel", *ZAW* 89 (1972), 460-493.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

www.kci.go.kr

검색어

왕의 권리

왕의 계약

왕정

왕위즉위식

신명기 역사서

The King's Rights in 1 Samuel 8: 11-17 - An Article That Tells the King's Legitimate Rights -

Keung-Jae Lee

Lecturer at Mokwon University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 Dr. theol.

The text of the 'king's rights' in 1 Samuel 8: 11-17 along with the 'Jotham fable' has been usually considered a representative criticism of the monarchy. Because its content is mentioned by such negative words as "exploitation" or "servant."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raise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text really speaks to the king's negative ruling principle. To answer this question,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Sitz im Leben of the king's rights in 1 Samuel 8: 11-17 was the king's covenant, which a king made with his people during the enthronement ceremony. For this study, I used a textual-critical method for Samuel 8: 11-17 as well as a religio-historical method for

www.kci.go.kr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ancient Near East.

Although the 'king's covenant' is mentioned only twice at the coronation ceremony of David (2 Sam 5: 3) and of Joash (2 Kgs 11: 4) in the Old Testament, but the king's covenant was a ceremonial event which was celebrated at every coronation ceremony in the history of the kingdoms of Judah and Israel. The fact that the king's covenant was a ceremonial event in the enthronement ceremony is also proven through several examples of the Hittite and Assyrian empires.

The 'king's covenant' includes mutual duties and rights between the two parties (a king and his people), just like a 'covenant' in the secular world. One of the 'king's rights' is to us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o receive taxes, as partially introduced in 1 Samuel 8: 11-17. The king's duty, on the other hand, is to defend his nation and people from the enemy, to observe the religious ceremonies and feasts, to enrich the people, and to develop national infrastructure. Thus, if we think of the 'king's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covenant between a king and his people at the enthronement ceremony, it can be seen that the text of the 'king's rights' in 1 Samuel 8: 11-17 is not a criticism of the monarchy.

Keywords

king's rights

king's covenant

kingdom

enthronement ceremony

deuteronomistic history

- 투고일: 2017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7년 10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30일

www.kci.go.kr